

琴川九曲 園林과 琴川九曲詩 연구*

김문기**

차례

- I. 머리말
- II. 금천구곡 설정의 배경과 목적
- III. 금천구곡의 원림적 특징과 금천구곡시의 세계
- IV. 맺음말

【국문초록】

금천구곡은 부사 성여신(1546-1632)이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의 금천에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이다. 경상도 남부지역에 존재하는 10개 미만의 구곡원림 중에서 남명학이 우세한 진주 지방의 금천구곡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되는 원림이다.

성여신이 경영했던 금천구곡은 금천을 따라 내려가며 설정하였는데 제1곡이 봉학대, 제2곡이 황류연, 제3곡이 어풍정, 제4곡이 와운퇴, 제5곡이 적벽만, 제6곡이 송강진, 제7곡이 반구주, 제8곡이 임강정, 제9곡이 경심담이다.

금천구곡은 성여신이 71세 때에 여씨 향약과 퇴계의 향약을 참고하여 자신이 거처하는 고을에 적합한 동약을 만들어 건전한 유학의 문풍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금천구곡의 설정도 이러한 풍속의 쇄신과 문풍학립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여신은 구곡을 설정할 때에 주자의 무이구곡 설정 방식에 구애받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주자의 무이구곡은 아래로부터 물을 거슬러 올라가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며 구곡을 설정했으나 금천구곡은 성여신이 동민들과 더불어 자연을 완상하며 심신을 정화하려는 목적이 컸으므로 물을 따라 내려 오면서 순리대로 구곡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본다. <금천구곡시>도 그 형식부터 무이도가와 차별성을 띠게 되었다. 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이도가를 차운하지도 않았다. 이는 성여신이 무이구곡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실용성에 무게를 두어 주자의 구곡문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경영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도학을 추구하는 입도차제적 입장보다는 자연을 완상하는 인물기흥적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탁홍우의적인 시세계를 펼쳤다.

<금천구곡시>에는 부분적으로 선취경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성여신이 만년에 동약을 만들어 행하고 금천구곡을 설정하여 경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선의 세계를 찾아 유람을 즐기는 은일의 변모양상이라 하겠다. <금천구곡시>에 드러난 선취는 범부들이 사는 범속의 세계를 떠나 높은 정신세계, 청정한 세계를 지향하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어

금천구곡, 금천구곡시, 성여신, 이정, 남명, 청정성, 탁물우의, 선취경향

I. 머리말

영남지방은 우리나라 구곡원림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부지역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구곡원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인 경상남도과 부산·울산광역시 지역에는 매우 드물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경상우도에 비해 경상좌도의 구곡원림의 수가 월등히 많다. 그 까닭은 자연 환경과 유학자의 분포 및 유학 사상의 특징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경상도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경상좌도가 경북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수가 더 수려하다고 볼 수 있고,

경상좌도는 退溪를 중심으로 한 理學 위주의 유학이 우세하였고, 경상 우도는 南冥을 중심으로 한 義理 위주의 실천 유학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상도 남부지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구곡원림인 朴龜元의 姑射九曲을 비롯하여 霞溪 李家淳의 原明九曲, 陶窩 崔南復의 白蓮九曲, 泉史 宋璪奎의 礪溪九曲, 明湖 韓後遂의 鐵馬九曲, 秋波 吳璣泳의 長田九曲, 明庵 鄭栻의 武夷九曲 등 10개 미만의 구곡원림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南冥學이 우세한 晋州 지방의 琴川九曲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금천구곡을 설정하고 <琴川九曲詩>를 창작한 부사 성여신이 퇴계학을 계승한 龜巖 李楨의 문인이면서도 南冥 曹植의 문인이라는 점, 금천구곡이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설정된 점, <금천구곡시>가 武夷權歌의 韻을 차운하지 않고 序詩 없이 9수로 된 점, 금천구곡의 설정과 경영이 洞約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 특이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금천구곡의 설정 배경과 목적, 금천구곡의 위치 고증, 금천구곡의 원림적 특징, <금천구곡시>의 성격 및 시세계를 고구해 보고자 한다.

II. 금천구곡 설정의 배경과 목적

琴川九曲은 浮查 成汝信(1546-1632)이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천¹⁾에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이다.

1) 금천의 현재 명은 琴江이다. 여기서는 금천구곡을 주로 논하기 때문에 '금강'을 '금천'으로 칭한다.

금천구곡을 설정하고 금천구곡시를 지은 성여신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昌寧, 자는 公實, 호는 浮查이다. 진주에 처음 거주한 長興庫副使 祐가 고조이고, 承文院校理 安重이 증조이며, 증호조참판 日休가 조부이고, 慶基殿奉事 斗年이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草溪卞氏 元宗의 딸이다.²⁾ 8세(1553)에 이모부인 槽溪 申靄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15세에 진주 교수로 부임한 藥圃 鄭琢(1526-1605)에게 『尙書』를 배웠고, 18세에 龜巖 李楨(1512-1571)에게 『近思錄』을 배웠다.³⁾ 23세 때에는 南冥 曹植을 찾아가 문인이 되었다. 그의 학문적 바탕은 두 줄기로 형성되었으니, 구암 이정을 한 갈래로 한 孝悌忠信의 爲己之學的 면모와 남명 조식을 한 갈래로 한 敬義의 實踐的인 면모이다.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인 성여신은 과거 공부에 매진하여 64세(1609)로 생원·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다.⁵⁾ 그러나 그는 文科 會試에 응하기 위하여 한양에 올라갔다가 당시의 世道가 혼란함을 보고 나서 과거에 응시하지 아니하고 돌아와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었다.⁶⁾ 관계의 진출을 단념한 성여신은 고향에 은거하며 유학을 바로 세우는데 매진하였다. 그는 먼저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깊숙이 자리한 불교를 배척하는 데

2) “司諫生諱祐 官長興庫副使 始居晉州 於公爲高祖 曾祖諱安重 官承文院校理 祖諱日休 號無心翁 贈戶曹參判 考諱斗年 性孝友 薦除慶基殿參奉 不就 贈漢城右尹 娶草溪卞氏忠順衛元宗之女” 『浮查先生文集』 卷8 「附錄」 <行狀>

3) “八歲。就中槽溪靄受學 公卽文忠公叔舟之曾孫 於公爲姨母夫 隱居講學 故公從師焉 … 庚申 藥圃鄭公琢爲本州教授 往受尙書 … 癸亥春 執贄往謁龜巖李公楨 李公許以國器 授以近思錄勉爲己之學” 『浮查先生文集』 卷8 「附錄」 <行狀>

4) 李商元, “浮查 成汝信의 隱逸精神”, 南冥學研究論叢 4, 南冥學研究院, 1996.

5) “己酉 俱中生進試 先是 右尹公臨歿語公曰 余以獨身養親 早年廢學 失於顯揚之道 汝須努力 不以吾死而有懈 公泣而受命 講學之暇 勤於舉業 至老不休 前後發解二十四 至是始小成焉” 『浮查先生文集』 卷8 「附錄」 <行狀>

6) “癸丑 魁東堂試赴京 見世道昏亂 遂不入試而歸 自是 長往之計決矣” 『浮查先生文集』 卷8 「附錄」 <行狀>

도 힘을 썼다.

이에 앞서 승려 휴정이 <三家龜鑑>을 지었는데 유가를 말단에 두었다. 또 불상을 만들어 四天王이라 이름하였는데 모습이 매우 괴이하였다. 공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이 머리 깎은 놈들이 우리 道를 업신여김이 심하다.” 하고 동아리[接中]가 그 책에 서명한 것을 가져다 찢고는 승려 무리에게 명하여 불상을 헐게 하고 그 책판을 불질렀다.⁷⁾

이 소식을 들은 南冥 曹植은 “말세의 인물들은 간혹 젊었을 때에는 기개가 드높다가도 점차 연약해지고, 후생은 온갖 일에 대해 적당히 넘기려고만 하니 어떻게 진취할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 狂簡을 취택하신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⁸⁾ 말하고 이튿날 성여신이 남명을 배알하자 남명이 맞아 들어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조금 지나 守愚堂 崔永慶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성여신이 불상을 헐어버린 일을 말하자 최영경이 옷깃을 여미고 일어나 경의를 표하였다.⁹⁾

또 성여신은 임진왜란 이후 투박하고 문란해져 가는 풍속을 바로잡기 위하여 呂氏의 鄉約과 退溪의 洞約을 모방하여 이를 자신의 고을에 시행하는 데 힘을 썼다.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로 士子들이 학문할 줄을 몰랐으므로 공이 斯文을 흥기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다. 병진년(1616) 봄에 자신이 거주하

7) “先是 僧休靜撰三家龜鑑 以儒家置之末 且造佛像 名曰四天王 形甚怪偉 公忿然曰 此髡之侮吾道甚矣 取接中之印其書者裂之 命僧徒毀佛像 焚其板” 『浮查先生文集』 卷8 「附錄」 <行狀>

8) “南冥先生聞之曰 末世人物 雖或少時激昂 漸就軟熟 後生輩百事務爲調適 何以進就 夫子之取狂簡者此也” 『浮查先生文集』 卷8 「附錄」 <行狀>

9) “俄而守愚堂崔公永慶來 先生指公而語毀佛事 崔公斂衽而起敬” 『浮查先生文集』 卷8 「附錄」 <行狀>

는 琴山里에, 呂씨의 鄉約 및 退溪의 洞約을 모방하고 거기에 약간의 조항을 증감하여 약속을 시행하였다.¹⁰⁾

성여신이 여씨의 향학과 퇴계의 동약을 모방해 자신의 마을에 실행하려 하였던 의도는 유학을 흥기하는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곧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전쟁으로 인하여 유학의 문풍이 혼란해진 상황에서 여씨 향약과 퇴계 동약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琴川九曲은 이 동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정되고 경영되었다.

지금 내가 이미 그 땅을 이름하여 九曲水라 하고 또 그 뜻을 읊어서 <九曲詩>를 짓고 洞約의 뒤에 이어 적는다. 오직 우리 한 마을 여러 회원들은 約條를 함께 지키고 美俗을 함께 이루고 勝地를 함께 노닐고 勝事를 함께 완상하니 즐겁고도 화평하여 자연스레 태고의 순박한 세계에 흘러들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굴욕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¹¹⁾

동약을 만들고 그 뒤에 <금천구곡시>를 지어 붙였으니 금천구곡의 설정과 경영은 동약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 마을의 여러 회원들이 동약을 지켜서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고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여 태고의 순박한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그가 지향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굴욕인지

10) “自經龍蛇之亂 士不知學 公以興起斯文爲己任 丙辰春 就所居琴山里 倣呂氏鄉約 退溪洞約 略加損益而行之” 『浮查先生文集』 卷8 「附錄」 <行狀>

11) “今余旣名其地 爲九曲水 又詠其旨 爲九曲詩 係寫於洞約之後 惟我一洞諸貞 共遵約條 共成美俗 共遊勝地 共賞勝事 熙熙然皞皞然 自然流入於洪荒朴略之世界 不知何者爲是 何者爲非 何者爲榮 何者爲辱”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并序】

알지를 못하는 경지였다. 그러므로 <금천구곡시>는 태고의 순박한 세계를 형상화한 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세계는 시속의 혼탁한 세계가 조금도 침범할 수 없는 청정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성여신은 이러한 세계를 武夷山에 은거했던 주자의 <武夷權歌>에서 찾았는데 주자의 <무이도가>를 자신이 은거하는 공간에서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무이산에 못지 않은 빼어난 경치를 가진 琴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武夷山이 있는데 높이가 삼백 길이고 둘레가 백여 리이며 봉우리 중에서 큰 것이 서른여섯이다. 양쪽의 언덕이 절벽이라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는 경우가 드문데 맑은 내가 아홉의 굽이를 이루며 그 사이를 흘러간다. 시내 위에 武夷精舍가 있는데 晦菴 朱先生이 은거하던 곳이고, 선생이 <九曲詩>를 지어서 세상에 전하였다. 지금 이 琴川九曲의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가 또한 어찌 무이산의 仙區¹²⁾와 다르겠는가? 다만 회암처럼 그 땅에 알맞은 이름을 붙이고 풍류를 그려내는 사람이 없어서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가 묻혀 버려 이를 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¹³⁾

성여신은 중국의 무이산과 진주의 금천이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다만 무이산은 주자가 있어서 그 승경을 <구곡시>로 읊었지만 금천은 이를 드러낼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였다. 이

12) “中國 有武夷山 高三百仞 周百餘里 峯巒之大者 三十有六 兩岸絕壁 人跡罕到 清溪九曲 流出其間 溪上有武夷精舍 晦菴朱先生藏修處 先生作九曲詩 傳于世 今此琴川九曲之佳絕 亦何異於武夷之仙區 但因其地占其名 摸寫風流如晦菴者無之 勝地埋沒 迄無傳之者” 『浮查先生文集』卷1 「詩」 <九曲詩> 【并序】

13) “中國 有武夷山 高三百仞 周百餘里 峯巒之大者 三十有六 兩岸絕壁 人跡罕到 清溪九曲 流出其間 溪上有武夷精舍 晦菴朱先生藏修處 先生作九曲詩 傳于世 今此琴川九曲之佳絕 亦何異於武夷之仙區 但因其地占其名 摸寫風流如晦菴者無之 勝地埋沒 迄無傳之者” 『浮查先生文集』卷1 「詩」 <九曲詩> 【并序】

때문에 그는 <금천구곡시>를 지어서 금천의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를 형상화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그가 금천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했던 목적은 동약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과 태고의 순박한 세계를 이루고 이 세계를 마을 사람들과 두루 유람하며 순박한 세계와 하나가 되려는 데 있었다. 성여신이 추구하는 순박한 세계는 불교의 악습과 전쟁의 흔적이 사라진 청정한 세계, 유학의 문풍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는 신선의 세계를 빌어 와서 이를 설명하려 하였다.

이제 이 땅을 가지고 그 실상을 고찰하고 증험하니 頭流山은 곧 方丈山이다. 방장산은 곧 三神山의 하나인데 秦始皇과 漢武帝가 보고 싶어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산이니 신령하고 기이한 산이 어찌 무이산 뿐이겠는가? 萬壑千巖에 맑은 내가 다투어 흐르는데 그 물이 羸石樓 앞을 지나가니 羸石은 곧 영남의 제일가는 내가 되고 산이 되기 때문에 菁川의 芳草가 어찌 漢陽의 鸚鵡洲보다 못하겠는가? 琴川의 냇물은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돌아 흘러 청천이 되고 흘러 내려 南江이 되고 달려가서 금천이 되니 금천의 아홉 굽이는 실로 두류산의 수많은 골짜기에서 시작한다. 무이산 첩첩의 골짜기를 흐르는 시내가 아홉 굽이가 되는 것에 견주어 어찌 부족함이 있겠는가?¹⁴⁾

武夷九曲을 흐르는 맑은 물의 근원이 武夷山이라면 琴川九曲을 흐르는 맑은 물의 근원은 頭流山이다. 성여신은 두류산의 청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方丈山을 언급하였는데 두류산의 또 다른 이름이 방장산이기 때문이

14) “今據此地 考驗其實 則頭流卽方丈 方丈乃三神山之一也 秦皇漢武願見而未得者則山之靈異 奚啻武夷 萬壑千巖 玉溪爭流 流過羸石樓前 則羸石乃嶺南第一溪山也 菁川芳草 豈減於漢陽鸚鵡 琴川之水源 發於頭流 匯而爲菁川 下而爲南江 走而爲琴川 則琴川之九曲 實由於頭流之萬壑 其與武夷千壑之流而爲九曲 有何讓焉”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并序】

다. 방장산은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이니 신령하고 기이한 산이 아닐 수 없었다. 진시황과 한 무제가 마음에 두고 있을 정도이니 그 청정성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었다. 이 산에서 흘러오는 물은 산의 신령한 기운을 머금고 있어서 맑고도 맑았다. 그 물이 금천을 흘러가니 금천구곡은 청정한 공간이 아닐 수 없었다. 성여신이 이 공간에 아홉 굽이를 설정하고 유람하려 한 목적이 바로 금천이 가지는 청정성 때문이다. 이 청정성은 자신만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를 맑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금천구곡을 설정하고 <금천구곡시>를 지어서 구곡문화를 영위하였다.

성여신의 <금천구곡시>는 기존의 <구곡시>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구곡시>가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주자의 정신을 계승하려 하였는데 <금천구곡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존의 <구곡시>는 序詩를 포함하여 10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하여 <금천구곡시>는 서시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9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금천구곡시>는 기존의 <무이도가> 수용에서 나타나는 入道次第, 因物起興의 양상과는 달리 托興寓意의 시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성여신이 경영했던 금천구곡은 금천을 따라서 내려가며 설정하였는데 제1곡이 鳳鶴臺, 제2곡이 黃柳淵, 제3곡이 馭風亭, 제4곡이 卧雲瀨, 제5곡이 赤壁灣, 제6곡이 松江津, 제7곡이 伴鷗洲, 제8곡이 臨江亭, 제9곡이 瓊心潭이다.



▲ 금천구곡 위치도

Ⅲ. 금천구곡의 원림적 특징과 금천구곡시의 세계

제1곡 鳳鶴臺

금천구곡 제1곡은 봉학대이다.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일대이다.

栢洞의 남쪽에 있다. 서쪽으로 큰 들판을 마주하고 남쪽으로 긴 숲을 바라본다. 두 내가 푸른빛을 끌고 오고 세 산이 푸른빛을 모아 솟아 있다. 천 길의 푸른 벽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돈다. 백 그루 푸른 소나무가 앞에 솟아 있어 뒤에 그늘을 드리운다. 鳳凰臺와 黃鶴樓의 경치를 겸하기 때문

에 鳳鶴臺라 이름하였다.¹⁵⁾

봉학대는 백동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백동은 현재의 松柏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쪽으로 큰 들판을 마주하고 남쪽으로 긴 숲을 바라본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서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남쪽으로 진주종합경기장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과거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두 내가 푸른빛을 끌고 오고 세 산이 푸른빛을 모아 솟아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두 내는 갈전천과 영천강을 말하고 세 산은 문산, 동산, 달음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분명하지 않다. 성여신은 이 굽이가 봉황대와 황학루의 경치를 겹치기 때문에 봉학대라고 이름하였다고 하였는데 주변에 영천강과 갈전천이 만나는 지점에 높은 대가 있어 봉학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 봉학대 아래에는 성여신이 『근사록』을 배운 龜巖 李楨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一曲流廻鳳鶴臺 일곡이라 흐르는 물 봉학대를 돌아
 澄澄漾漾鏡新開 맑고도 넓으니 거울이 새로 열리네
 三山二水今猶古 삼산과 이수는 지금과 옛날이 같은데
 愧乏詩仙泣鬼才 시선 없어 부끄럽고 귀재 없어 섭도다¹⁶⁾

금천구곡 제1곡에서 성여신은 우뚝 솟아 있는 봉학대를 바라보았다. 금천의 거울 같은 맑은 물이 봉학대를 휘돌아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 굽이에서 삼산과 이수가 변함없이 자리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잘 드러낼

15) “在栢洞南 西臨大野 南望長林 二水拖青而來 三山攢碧而聳 千尋翠壁 左遶右廻 百株蒼松 前挺後陰 兼鳳凰臺黃鶴樓之景 故名之曰鳳鶴臺”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一曲詩 註

16)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一曲詩

수 있는 李白¹⁷⁾이나 崔顥¹⁸⁾ 같은 뛰어난 시인과 〈岳陽樓記〉를 지은 范仲淹 같은 대문장가가 없는 것을 부끄럽고 슬프게 생각하였다.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진 가경은 이루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이를 시와 글로 지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은 바로 자신이 이 굽이의 진경을 〈구곡시〉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다짐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2곡 黃柳淵

금천구곡 제2곡 황류연은 이름처럼 누른 버들이 드리운 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황류연이 따로 존재하는 못은 아니었다. 금천의 한 굽이에 금천이 굽이돌며 자연스레 형성된 못이라 할 수 있다. 제1곡 봉학대에서 영천강을 따라서 내려오면 금천과 만나고 여기에서 금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제방이 다하는 지점에 야트막한 바위산과 만나게 되는데 이 굽이가 황류연으로 추정된다.

鳳鶴臺 북쪽에 있다. 깊은 곳은 배로 건너고 얇은 곳은 걸어서 건넌다.¹⁹⁾

황류연은 봉학대에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현재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일대라고 할 수 있다. 깊은 곳은 배로 건너고 얇은 곳은 걸어서 건넌

17) 鳳凰臺上鳳凰遊/鳳去臺空江自流/吳宮花草埋幽徑/晉代衣冠成古丘/三山半落青天外/二水中分白鷺洲/總爲浮雲能蔽日/長安不見使人愁(李白, 登金陵鳳凰臺)

故人西辭黃鶴樓/煙花三月下揚州/孤帆遠影碧空盡/唯見長江天際流(李白,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18) 黃鶴已乘黃鶴去/此地空餘黃鶴樓/黃鶴一去不復返/白雲千載空悠悠/晴川歷歷漢陽樹/芳草萋萋鸚鵡洲/日暮鄉關何處是/煙波江上使人愁(崔顥, 黃鶴樓)

19) “在鳳鶴之北 深有舟 淺有步”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二曲詩 註

다고 하였으니 나루가 있었던 굽이가 분명하다. 속사리에서 금천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보면 금천 오른쪽에 야트막한 산이 있는 곳에 이른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굽이에 그 옛날 나루가 있었다고 한다. 금천의 물이 줄어들면 바지를 걷고 건널 수 있었지만 물이 불어나면 배로 나를 건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일대가 금천구곡 제2곡 황류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二曲溶溶黃柳灘	이곡이라 도도히 흐르는 황류 여울
明沙白石走瓊湍	맑은 모래 흰 돌 위로 맑은 여울 흐르네
漁翁不管興亡事	어옹은 흥망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唯伴沙鷗把一竿	모래 갈매기만 짝하며 낚시대 잡네 ²⁰⁾

금천구곡 제2곡은 금천이 굽이돌며 커다란 여울을 이루는 굽이었다. 주변에 누른 버드나무가 물가에 드리우고 있어서 이 굽이의 이름을 황류연이라 하였다. 황류연 안을 들여다 보면 맑은 모래, 흰 돌 위로 금천의 맑은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성여신은 아름다운 경치가 전개 되는 굽이를 바라보다가 漁翁을 볼 수 있었다. 어옹은 일반적으로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여신이 말한 어옹은 그렇지 않다. 그는 어옹이 흥망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갈매기와 짝을 하며 낚시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흥망의 일이란 세상의 흥망 성쇠를 말하니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한가롭게 지내는 존재가 어옹이 아닐 수 없다. 한가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어옹은 모래 위의 갈매기와 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二曲詩

제3곡 馭風亭

금천구곡 제3곡은 어풍정이 자리했던 굽이이다. 아쉽게도 지금 이 굽이는 지형이 많이 변해 그 흔적을 확인하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굽이의 옛 지명은 어리골인데 이 이름은 어풍정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금천의 물굽이가 지금과는 달리 과거에는 어리골 지역으로 굽이돌아 흘렀다고 한다. 그런데 남강댐이 건설되면서 수위가 낮아져 이 일대가 모두 경작지로 변하였고 어풍정이 있었던 곳도 공군교육사령부로 편입되어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數鴈亭 서쪽에 있다. 천 길 높이 솟은 바위가 아래로 鮫窟과 마주하고 백척 되는 장송이 바위 위에 우뚝 섰다. 옛날에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한 지방의 名區가 되어서 노니는 사람들 중에서 술을 가지고 오가는 이가 끊이지 않으니 魚灌圃의 冥鴻亭 상량문에 “馭風亭은 현란하여 엿볼 수 없다.”고 말한 곳이다.²¹⁾

어풍정은 수안정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수안정은 龜巖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귀암은 현재 금산교 부근에 솟아 있는 바위 언덕을 말한다. 성여신이 금천구곡 제3곡 어풍정에 이르렀을 때, 천 길 높이 솟은 바위가 아래로 교굴을 마주하며 빼어난 경치가 전개되는 공간이었다. 이 굽이는 이 지역에서 이름난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서 연회를 가지면서 즐기는 공간이었다. 灌圃 魚得江(1470-1550)은 만년에 진주 지역에 은거하였는데 명홍정의 상량문을 지으면서 ‘어풍정은 현란하여 엿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어풍정 앞으로 전개되는 경치가 다른 곳이 엿볼 수

21) “在數鴈亭之西 千仞危巖 俯臨鮫窟 百尺長松 挺立巖上 古有亭 今無矣 爲一方名區 遊人携酒往來者不絕焉 魚灌圃冥鴻亭上梁文 所謂馭風亭眩難不窺者也”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三曲詩 註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馱風仙子去無蹤	어풍정은 신선이 떠나가 흔적 없고
三曲巖邊百尺松	삼곡의 바윗가엔 백 척 소나무 서있네
森森烟波誰管領	아득한 안개 물결 누가 관리하는가
舊磯無主碧苔封	옛 물가 주인 없어 푸른 이끼 끼었네 ²²⁾

어풍정은 신선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굽이었다. 그런데 성여신이 이 굽이에 이르렀을 때, 신선은 떠나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바윗가에 백 척 높이 솟아 있는 소나무가 있을 뿐이었다. 이 굽이에서 성여신이 찾고자 했던 신선은 무엇인가? 유학자인 그가 도가의 신선을 찾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성여신이 찾은 신선은 다름이 아니라 신선이 깃들어 살 수 있을 정도의 청정성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에는 신선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청정한 굽이었지만 불교, 전쟁 등의 혼탁한 요소로 인하여 이 굽이는 그 청정성을 잃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성여신은 이 굽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물가에 푸른 이끼만 있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 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어풍정에 깃들어 있었던 청정성, 즉 태고의 순박한 세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4곡 岬雲瀨

금천구곡 제4곡 와운뢰는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琴湖池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하면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금호지는 금천과 많이

22)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三曲詩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금천을 따라서 설정되어야 할 굽이가 금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설정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지형의 변화를 고려하면 그릇된 추정이라 말할 수 없다. 이 지역 사람들의 말을 빌면 남강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수량이 매우 많아 금호지 가까운 곳까지 물길이 있었고 홍수가 질 때는 금호지 앞까지 물이 찰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하천 정비 사업으로 물길을 멀리 돌리고 그곳에 농경지를 만들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남강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이 굽이가 하천에 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와운되는 지금의 금호지보다는 서쪽에 자리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北坪의 서쪽에 있다. 띠 모양의 긴 못이 십 리 남짓 가로질러 있다. 여울 위에 平蕪가 있는데 매우 넓어 마을 사람들이 봄과 가을에 修禊를 하는 곳이다.²³⁾

금천은 북평의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금천 옆으로 펼쳐지는 넓은 들이 북평이니 그 서쪽에 자리한 금호지가 와운되라 추정할 수 있다. 또 띠 모양의 긴 못이 십 리 남짓 가로질러 있다고 하였는데 이 못의 일부분이 현재 금호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마을 사람들이 봄과 가을에 修禊를 하는 곳이라 하였는데 현재 금산면 유지들이 금호지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는다고 하니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耕雲西畔臥雲汀 구름 서편 두둑을 갈고 운정에 누우니
四曲長潭淡更渟 사곡의 긴 못에 물이 맑고 잔잔하네

23) “在北坪西 長潭一帶 橫截十里許 瀨上有平蕪甚廣 洞人春秋修禊之地”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四曲詩 註

九九三三修禊地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계하는 곳
 風流何似晉蘭亭 풍류가 어찌 진나라 난정과 닮았는가²⁴⁾

금천구곡 제4곡 와운퇴의 특징은 구름이다. 구름이 드리운 들판과 구름이 드리운 못가에서 성여신은 발을 갈고 한가롭게 보내었다. 이 굽이에서 금천 물이 완만히 흐르며 넓은 못을 이루니 이 물에서 발생한 안개가 구름의 형상을 하고서 자주 굽이를 덮었기 때문에 구름과 연관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성여신은 이 굽이에서 은자의 삶을 살며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었다. 그는 이 굽이가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계하던 곳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수계는 진나라 蘭亭에서 하였던 修禊²⁵⁾와 닮았다고 하였다.

난정은 거울 같은 시내와 울창한 대숲으로 둘러싸인 중국 會稽 땅의 명소이다. 353년 어느 늦은 봄날에 王羲之는 41명의 명사들을 난정에 초청하여 시의 향연을 벌였다. 시인들은 流觴曲水에 걸터앉아 술잔을 기다리고, 술을 가득 담은 술잔이 곡수를 타고서 내려오면 단숨에 이를 들이키고 이내 시 한 수를 지어야 했다. 이렇게 하여서 시집 한 권이 완성되었고 왕희지가 서문을 썼는데 이 글이 바로 <蘭亭序>이다.

성여신이 금천구곡을 경영하며 지향했던 세계는 왕희지가 난정에서 시인들과 추구했던 세계가 아닐까 한다. 즉 성여신이 금천구곡에서 이루어 하였던 순박한 세계는 그 옛날 진나라 왕희지가 난정에서 하였던 풍류의 세계가 그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4)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四曲詩

25)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수계라는 풍속이 있었는데, 수계는 은나라와 주나라 이래로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3월의 첫 上巳日에 관리들이 백성들과 함께 동쪽으로 흐르는 물가에서 목욕 재계한 후에 재앙을 예방하고 축복을 기원했던 풍속이다.

제5곡 赤壁灣

금천구곡 제5곡 적벽만은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마을 들판과 금천의 사이에 있다. 중천리 앞으로 난 좁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논과 이어진 야트막한 산이 나오는데 그 산에 바위 벼랑이라 할 수 있는 절벽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금천 물이 이 바위 벼랑 앞으로 흘러서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었다고 한다. 성여신이 적벽이라 이름한 곳이 이 벼랑으로 보인다.

水清澗의 남쪽에 있다. 어떠한 사람이 “吳谷이 그 동쪽에 있고, 옛날에赤壁이 오나라 땅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吳 자를 가지고 이러한 이름을 하였다.”고 말하는데 옳은지 그른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 동쪽에는 붉은 바위가 둘러 있기 때문에 적벽이라 이름한다. 위아래에 못이 있는데 두 못의 물고기가 오가는 길에 봄물이 불어나면 어부가 그물을 치기 때문에 “어랑이 거물을 가지고 새 물을 좇아라.”라는 시구를 두었다.²⁶⁾

적벽만은 수청추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수청추는 중천리를 청천 마을이라고도 하니 중천리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중천리, 즉 청천 마을 남쪽에 바위 벼랑이 있으니 이 굽이가 적벽만이 분명하다. 과거 이 굽이는 금천의 맑은 물이 바위 벼랑을 휘돌아 흐르면서 물굽이를 이루었기 때문에 적벽만이라 이름하였다. 현재는 금천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하천 정비 사업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추정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 굽이의 이름을 적벽이라 명명한 시기는 성여신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吳谷이 동쪽에 있고 붉은 바위 벼랑이 있기 때문에 적벽이라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이곳의 바위 벼랑을 이전부터

26) “在水清澗之南 或曰吳谷在其東 古之赤壁在吳地 亦從吳字 而有是名 未知是否 其東 紫崖環遶 故名之曰赤壁 上下有淵 兩淵之魚 往來之路 春水生 漁人網集 故有漁郎携網逐新流之句”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五曲詩 註

적벽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여신은 이를 확신할 수 없었다.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금천의 동쪽에 붉은 바위가 둘러 있기 때문에 적벽이라 한다고 하였다. 붉은 빛의 바위 벼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였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아래 위로 못이 있었는데 두 못이 금천 물이 불어나면 연결되어 물고기가 오가는데 이때에 어부가 그물질을 한다고 하였다. 아래 위에 있는 못은 금천에 있었던 못이고 금천의 수위가 낮았을 때 자연스레 생긴 못일 것이다. 봄철에 두류산의 눈 녹은 물이 흘러오며 수위가 높아지면 두 못이 하나로 연결되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月白風清壬戌秋	달이 희고 바람 맑은 임술년 가을에
蘇仙乘興泛蘭舟	소동과 흥이 올라 난주를 띄우네
五曲如今誰作主	오곡은 지금 누가 주인이 되었나
漁郎携網逐新流	어郎이 거물을 가지고 새 물을 좇누나 ²⁷⁾

성여신은 금천구곡 제5곡 적벽만에서 蘇軾의 풍류를 떠올렸다. 적벽이 이 굽이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달이 밝고 바람 맑은 가을 어느 날, 물에 배를 띄워 유람하고 〈赤壁賦〉를 지었던 소식의 풍류를 누리고 싶어서 배에 올랐다. 달이 밝고 바람 맑은 날에 난주를 띄워서 소식의 흥취를 얻었는데 지금 적벽만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 금천 물이 불어나며 윗못과 아랫 못이 이어지는 날에 그물을 가지고 불어난 물에 배를 띄우는 어부가 적벽의 풍류를 누리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여신이 금천구곡에서 추구하는 또 하나의 풍류는 소식이 적벽에서 가졌던 흥취가 아닐 수 없다.

27)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五曲詩

제6곡 松江津

금천구곡 제6곡 송강진은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와 가방리 사이에 있었던 나루였다. 지금은 지형이 많이 변해 나루를 찾을 수 없고 비닐하우스로 채워진 들판과 강 건너 집현면 신당리, 장현리 들판만이 눈에 들어 올 뿐이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이 굽이에 나루가 있었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금천을 오갔다고 한다.

松岡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소나무를 가지고 이름을 하였다. 일명 龍堂이다. 옛날에 나의 벗 河子常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없다. 옛날 松江 甫里子가 은거한 곳이기 때문에 江湖散人이라는 말을 두었다. 나루에는 배가 있다.²⁸⁾

송강진은 松岡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하였다고 한다. 소나무 언덕이 제법 넓게 자리해 있었기 때문에 금천을 松江이라 명명하고 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松江津이라 이름하였다. 또 다른 이름은 龍堂이라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편적 지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我是江湖一散人 나는 강호에서 살아가는 산인이니
 行裝隨處任天真 행장은 처하는 곳마다 천진에 맡기네
 六曲澄澄烟浪闊 육곡은 맑고 맑은 안개 물결 더 넓으니
 筆牀長與白鷗親 필상에서 오래도록 백구와 친하게 지내리²⁹⁾

성여신은 자신을 강호산인이라 하였다. 강호산인은 전원에 깃들어 한

28) “在松岡下 故以松名 一名龍堂 昔者 吾友河子常 結齋棲息於其上 今亡矣 夫古松江甫里子 所隱 故有江湖散人之語 津有舟”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六曲詩 註

29)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六曲詩

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그는 행장을 꾸려서 처하는 곳마다 天真에 맡긴다고 말할 수 있었다. 천진은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진 본성을 말하니 세상의 혼탁함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성품을 말한다. 즉 사물을 분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는 성품을 가졌다는 말이다. 성여신은 맑고 맑은 안개 물결이 더 넓게 펼쳐진 송강진에서 筆牀을 가지고 오래도록 흰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였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필상을 앞에 두고 금천 위를 자유롭게 노니 는 흰 갈매기와 벗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제7곡 伴鷗洲

금천구곡 제7곡은 반구주이다. 갈매기와 짝을 하는 모래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굽이는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앞으로 흐르는 금천 일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굽이에는 浮查亭이 있는데 부사정에서 가까운 금천가에 반구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지형이 많이 변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다.

浮查의 동쪽에 있다. 정유년 여름에 옹이 金陵에 피난하였다가 경자년 봄에 비로소 고향에 돌아와 이곳에서 피서하며 伴鷗로 이름을 하였다. 『伴鷗亭記』에 자세히 적혀 있다.³⁰⁾

부사정 동쪽에 있었던 반구주는 성여신이 정유년에 왜적의 침략을 피하여 金陵에 머물러 있다가 왜란이 평정되어 다시 진주로 돌아와서 은거했던

30) “在浮查東 丁酉夏 翁避亂金陵 庚子春 始還鄉土 避暑於此 仍以伴鷗名之 詳在伴鷗亭記” 『浮查先生文集』卷1 「詩」 <九曲詩> 七曲詩 註

곳이다. 그는 이 굽이를 반구주로 명명하고 자연과 하나된 삶을 살았다.

伴鷗亭下伴鷗洲 반구정 아래에는 반구주가 있는데
 曾是閒翁占斷丘 일찍이 한옹이 잘린 언덕 차지했네
 忘機忘世兼忘我 기심 잊고 세상 잊고 나 또한 잊으니
 七曲知爲我菟裘 내가 은거할 곳 칠곡임을 알겠네³¹⁾

반구정 아래에 반구주가 있었다. 반구정 아래로 흐르는 금천 가에 갈매기가 앉았다가 날아가는 모래섬이 있었다. 성여신은 이 굽이에 은거하여 한가롭게 살아가며 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언덕에 지은 정자의 이름이 반구정이니 반구주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하였다. 이 굽이에서 성여신의 삶은 기심을 잊고 세상을 잊고 자신도 잊는 삶이었다. 간교한 마음인 기심을 잊고, 물욕을 추구하는 혼탁한 세상을 잊고, 인욕을 지향하는 이기적 자신을 잊으니 자연과 자신이 둘이 아니라 하나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자연과 하나될 수 있었으니 물가 모래섬의 갈매기와 짝할 수 있었고, 짝을 하며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제8곡 臨江亭

금천구곡 제8곡 임강정은 반구정으로부터 1리 아래에 있었던 정자이다.³²⁾ 현재는 정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금천이 굽이도는 지점에 자리했던 정자임은 분명하다. 현재 이 굽이에는 금천 가로 ‘남성들’이 있고 그 들에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널따랗게 펼쳐져 있다. 금천 안에는 모래섬이 있어서 굽이도는 시내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31) 『浮查先生文集』卷1 「詩」 <九曲詩> 七曲詩

32) “伴鷗亭 在臨江亭上流一里 佳木數株 蔭覆江上 景致幽絕 翁之所占而名之者也” 『浮查先生文集』卷3 「記」 <伴鷗亭記> 註

挹碧堂 동쪽에 있다. 정자 아래에서 곧바로鉢峯 앞으로 빠르게 흐르는 내를 예로부터 烟雨溪라 이름하였다. 지금 보면 푸른 산이 앙상히 서 있고 푸른 물이 빠르게 흘러서 기이한 형태가 흐릿한 안개비 가운데 절묘하니 진실로 그림에 짙은 먹으로 그린 형상과 닮았기 때문에 이로써 이름을 하였다.³³⁾

임강정은 이름처럼 강에 임한 정자이다. 여기서 강은 금천을 말하니 금천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정자이다. 그런데 임강정 주변에 있었던 읍벽당, 발봉, 연우계 등은 현재 이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규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푸른 산과 푸른 물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이 전개된 굽이라는 점이다. 현재 임강정과 관련된 건물로 臨川書院이 있다.

임천서원은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에 있는데 1702년에 유림의 공의로 창건되어 1719년 新庵 李俊民, 誠齋 姜應台, 浮查 成汝信, 滄洲 河愷, 釣隱 韓夢參 등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1759년 유림이 상소를 올려 사액을 청했으나 사액을 받지 못했다. 그 후 1868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1935년 서원이 있던 자리 우측에 임천서당을 다시 건립하여 지금껏 전해오고 있다. 임천서원 편액 글씨는 성여신의 친필이다.

步出江亭泛小舟 강정에 걸어 나가 작은 배 띄우고
 倚舷南望水連天 뱃전에 기대 남쪽 물 위 하늘을 보네
 欲知八曲添奇狀 팔곡에 더해진 기이한 형상 알려 한데
 烟雨空濛滿一川 보얗게 내리는 안개비 시내에 가득하네³⁴⁾

33) “在挹碧堂之東 由亭下直走鉢峯前者 自古名之曰烟雨溪 由今觀之 蒼山骨立 碧水奔流 奇形異態 絕妙於朦朧烟雨中 正似畫圖濃墨之狀 故以是名之歟”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八曲詩 註

34)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八曲詩

성여신은 걸어서 임강정에 나가 작은 배를 띄우고 뱃전에 기대어 금천이 하늘과 닿는 지점을 바라보았다. 이 굽이에 이르러 금천은 폭이 넓어지며 열리는 공간이 되었다. 성여신은 팔곡에 펼쳐지는 기이한 형상을 파악하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얗게 내리는 안개비가 시내를 덮으며 내리고 있었다. 안개비 속에 펼쳐지는 仙的인 분위기를 형상화하였다.

제9곡 瓊心潭

금천구곡 제9곡 경심담은 월아산 아래의 금천에 있었던 못으로 보인다. 이름처럼 맑은 물이 이 굽이에 이르러 연못을 이루고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이 굽이는 금천의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 굽이에는 단양 장씨가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피난하는 곳이라서 그 지명이 안심방이라 한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왼쪽에는 별장이 있고 정면 언덕에는 몇 채의 집이 있다. 해발 475m의 월아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물이 금천으로 흘러들고 산허리에는 최근 지은 절이 자리하고 있다.

牙山の 북쪽에 大遯洞이 있는데 마을의 입구에는 瓊新潭이 있다. 경심담 좌우에 절벽이 마주하고 있는데 좌측을 鶴棲巖이라 하고 우측을 瓊新巖이라 하며 바위 아래 긴 시내에 깊고 맑은 곳을 瓊新潭이라 한다. 이곳에 이르면 산이 더욱 맑고 물이 더욱 푸르니 산빛과 물빛이 서로 잠겨서 다른 빛은 없으며, 푸른 버드나무와 흰 모래가 서로 비쳐서 다른 사물은 없다.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仙趣가 자못 많기 때문에 웅이 이를 기뻐하여 매번 봄 가을에 冠童을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혹 물고기를 잡고 혹 나무를 하는데 짧은 노를 가볍게 저어 오고 감이 절도가 없었다. 학서암 위에 몇 칸의 정사를 경영하고자 하였으나 능히 할 수 없었다.³⁵⁾

35) “牙山之北 有大遯洞 洞口 有瓊新潭 潭之左右 有絕壁雙峙者 左曰鶴棲巖 右曰瓊新巖 巖

여기에서 아산은 월아산을 말하고 월아산 북쪽에 있었다고 하는 대둔동은 현재 안심방으로 추정된다. 대둔동 좌우에 마주한 절벽은 현재 안심방 좌우에 솟아 있는 산으로 추정되니 좌측 산이 학서암이고 우측 산이 경심암이다. 두 산 사이를 흘러오는 시내가 금천에 흘러드는 지점에 있는 못이 경심담이라 할 수 있다. 성여신이 이 굽이를 사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仙趣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세상의 혼탁함이 이르지 않아서 청정한 기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이르면 산이 더욱 맑고 물이 더욱 푸르니 산빛과 물빛이 서로 잠겨서 다른 빛은 없으며, 푸른 버드나무와 흰 모래가 서로 비쳐서 다른 사물은 없다고 하였다. 성여신은 봄과 가을 冠童을 데리고 이곳을 찾아서 선취에 빠져,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는 隱者의 삶을 살았다.

翠壁千尋擁碧泓 천 길의 푸른 벽이 푸른 물을 두르니
 山增而綠水增清 산이 더욱 푸르고 물이 더욱 맑아라
 行尋九曲更佳絕 찾아 얻은 구곡은 더욱 아름답고 빼어나니
 問與武夷誰弟兄 무이와 금천 중에 어느 곳이 나은가³⁶⁾

성여신이 금천구곡 제9곡 경심담에 이르니 천 길 높이 푸른 절벽이 솟아 있고 그 아래로 푸른 금천 물이 굽이돌고 있었다. 그러니 산이 다른 굽이보다 더욱 푸르고 물이 더욱 맑다고 여겨졌다. 이 굽이에 이르면 마음이 맑아져 한가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간이 가지는 청정성 때문이다. 특히 마음을 맑게 하는 경심담이 있

下長川之深且澄者 謂之瓊新潭 到此則山益青 水益綠 山光水色 相薰而無他色 綠楊白沙 相映而無他物 人烟迥隔 仙趣頗多 翁喜之 每於春秋 携冠童乘小艇 或漁焉 或樵焉 短棹輕橈 往來無節 鶴棲巖之上 欲營數間精舍而未能焉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九曲詩 註

36) 『浮查先生文集』 卷1 「詩」 <九曲詩> 九曲詩

어서 가능하였다. 성여신은 제9곡의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에 고무되어 무이와 금천 중에 어느 곳이 더 낫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은거한 금천구곡이 주자가 은거한 무이구곡 못지 않게 아름답고 청정하다는 자부심을 이렇게 드러내었다.

IV. 맺음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천구곡은 성여신이 71세 때에 여씨 향약과 퇴계의 향약을 참고하여 자신이 거처하는 고을에 적합한 동약을 만들어 건전한 유학의 문풍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금천구곡의 설정도 이러한 풍속의 쇄신과 문풍확립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구곡의 설정 방식은 주자의 무이구곡에 구애 받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주자의 무이구곡은 아래로부터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구곡을 설정했으나 금천구곡은 성여신이 동민들과 더불어 자연을 완상하며 심신을 정화하려는 목적이 컸으므로 물을 따라 내려오면서 순리대로 구곡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금천구곡시>도 그 형식부터 무이도가와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 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무이도가를 차운하지도 않았다. 이는 성여신이 무이구곡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실용성에 무게를 두어 주자의 구곡문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경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道學을 추구하는 入道次第의 입장보다는 자연을 완상하는 因物起興의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托興寓意의인 시세계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세계는 성여신의 학문세계와도 연관성이 있다. 대체로 퇴계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학파의 구곡시는 입도차제적 경향을 띠고, 율곡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학파의 구곡시는 서경적이면서 인물기흥적 경향을 띠고 있는데³⁷⁾, 성여신은 퇴계의 학문을 이어받은 귀암을 통해 체득된 孝悌 忠信의 道와 남명을 통해 전수된 敬義 중심의 실천적 修養論 양면을 겸비함으로써 그가 지은 〈금천구곡시〉는 입도차체를 읊은 도학적인 시도 아니며 또한 단순히 敍景的이거나 인물기흥적인 시라고도 할 수 없다. 어쩌면 그 중도적인 탁흥우의적인 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九曲詩의 경우, 義의 실천을 중시하는 남명학파의 시적인 경향은 주기론적인 기호학파의 시적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2, 4, 8, 9곡 등에는 부분적으로 仙趣傾向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성여신이 만년에 동약을 만들어 행하고 금천구곡을 설정하여 경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선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유람을 즐기면서 方丈山仙遊日記, 仙遊辭, 仙遊詩 등을 남겼는데 이러한 일련의 선취 경향의 발로이며 隱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선유를 즐겼지만 仙界에 완전히 빠져 들거나 선계에 머물지 않고 土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仙儒的 仙趣’³⁸⁾의 경향을 나타낸 것처럼 〈금천구곡시〉에 드러난 선취는 범부들이 사는 凡俗의 세계를 떠나 높은 정신세계, 청정한 세계를 지향하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姜正瑞, “九曲歌系 詩歌에 나타난 空間이미지와 志向意識”,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5-38쪽.

37)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사대, 1991.

38) 崔錫起, “浮查 成汝信의 智異山遊覽과 仙趣傾向”, 韓國漢詩研究 7, 1999.

- 姜正瑞, “朝鮮後期の 武夷權歌 詩認識”, 東方漢文學 17, 동방한문학회, 1999. 19-30쪽.
- 권정은, “樓亭歌辭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205-230쪽.
-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사대, 1991. 35-86쪽.
-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2,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241-274쪽.
- 김문기,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退溪學과 韓國文化 4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193-233쪽.
- 金文基, “陶山九曲의 設定과 陶山九曲詩의 展開”, 退溪의 文學과 思想, 제22차 退溪學國際學術會議, 國際退溪學會·嶺南退溪學研究院, 2009. 209-324쪽.
- 金文基, “張緯恒의 雲浦九曲 園林과 雲浦九曲詩”, 退溪學과 韓國文化 49,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1. 137-164쪽. 137-164쪽.
- 金文基, “水落臺九曲과 水落臺漁歌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50,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1. 241-2664쪽.
- 김문기, “朴龜元의 姑射九曲과 姑射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52,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2.
-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319-346쪽.
- 윤진영, “朝鮮時代 九曲圖의 收容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7, 한국미술사학회, 1998. 61-91쪽.
- 李商元, “浮查 成汝信의 隱逸精神”, 南冥學研究論叢 4, 南冥學研究院, 1996.
-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造景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89.15-38쪽.
- 崔錫起, “浮查 成汝信의 智異山遊覽과 仙趣傾向”, 韓國漢詩研究 7, 1999.

Abstract

A Study on Geumcheon-gugok(琴川九曲) Garden and Geumcheon-gugok Poem

Kim, Mun-Kie

Geumcheon-gugok(琴川九曲) is Gugok garden(九曲園林) that Seong Yeo-shin(1546-1632) had established and managed in the Geumcheon stream(琴川) of Gumsan-myeon, Jinju-si, Gyeongsangnam-do.

Seong Yeo-shin established Geumcheon-gugok(琴川九曲) in order to reform custom and to settle writing style(文風). Thus, Gugok(九曲) was rationally established with going down along the water in the Geumcheon stream. Even Geumcheon-gugok poem(琴川九曲詩) came to have differentiation from Muidoga(武夷棹歌) by Zhuzi(朱子) just in its form. It not only has no prologue, but also had no rhyme-matching(次韻) of Muidoga. This seems to have been the intention of accepting and managing Zhuzi's Gugok-culture(九曲文化) more naturally and subjectively by which Seong Yeo-shin did put weight on practicality rather than blindly following Mui-gugok(武夷九曲). Accordingly, he did spread the Takheunguui(托興寓意)-based poetic world even while revealing the Inmulgiheung(因物起興)-based aspect of appreciating nature rather than the Ipdochaje(入道次第)-based position of pursuing moral philosophy(道學).

In Geumcheon-gugok poem, the partially Zen-fondness(仙趣) tendency is being revealed. This can be said to be a part of Eunil(隱逸) that Seong Yeo-shin enjoys sightseeing by searching for the world of scenic haven on the one hand while making and performing Dongyak(洞約, rule in village) in his latter years and managing Geumcheon-gugok. Zen-fondness, which was revealed in Geumcheon-gugok poem, can be considered to be what revealed the consciousness of pointing to the high mental world and the clean world with escaping from the secular world where ordinary people live.

Key Word

Geumcheon-gugok(琴川九曲), Geumcheon-gugok poem, Seong Yeo-shin, Cleanness(淸淨性), Takmuluui(托物寓意), Zen-fondness(仙趣)

▪ 논문투고일 : 2014.6.30. 심사완료일 : 2014.8.6. 게재결정일 : 2014.8.12.